開化期 韓國漢医學의 實情과 黃道淵의 医學思想

慶熙大学校大学院 漢医学科
金 勳 · 洪 元 植

Ⅰ. 緖 論

우리나라의 歷史를 通하여 文化的 偉業을 槪觀컨데, 昇華된 新羅의 佛教文化이며 優雅한 高麗青瓷 등은 우리 民族文化의 자랑이라 할 수 있으며, 李朝에 접어 들어 文字学上 最高의 構成인 한글의 創制야말로 우리 民族文化의 自主性을 具顯한 一大 偉業이라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러한 自主的 思想의 萌芽는 医薬部門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으니 世宗의 医薬済民策[1] 으로 刊行된 鄕薬集成方과 医方類 聚等은 民族医学形成에 決定的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또, 民族史上 大戰禍인 王辰倭乱後 宣祖의 命으로 編纂케 한 許浚의 東医宝鑑은 丁酉再侵(A.D 1597)의 乱을 겪으면서 前後 10年에 걸쳐 完成[2] 을 보았거니와 広範한 医書의 考証을 거쳐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이 大作이야말로 우리 民族医学의 基盤을 굳혔으며, 오늘날 韓国漢医学의 継承과 発展에 中枢的 役割을 하였다.

그後, 周命新의 医門宝鑑, 康命吉의 済衆新編等의 出現은 모두 浩繁한 漢医学을 보다 簡易하게 엮어 実証的 医学에로의 새로운 伝統을 試図하였든 것이니 이것은 모두 우리 民族医学의 発展의 具顯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近世西欧 文明의 流入으로 急速度로 普及된 西医学은 甲午更張 以後의 医事行政 및 医育制度의 西医学的 変革[3] 으로 制度化되어 우리나라의 医学의 主流를 占하게 되자, 漢医学은 凋落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落照의 빛은 한때 燦然하듯이 方薬合編의 黃道淵(A.D 1807~1884), 四象医学의 李済馬(A.D. 1837~1900)[4], 扶陽論의 李圭晙[5] (A.D. 1855~1923) 等의 碩学들의 出現은 衰退해가는 韓国漢医学을 鼓舞的으로 또 다른 体系와 基盤으로 定立시켰다.

그러나, 韓·日合併으로 因한 日本植民政策은 더욱 民族医学이란 理念 때문에 韓国漢医学을 滅亡의 危期까지 몰아 넣고 말았다. 天運이 循環에 無往不復이라더니 祖国光復과 함께 韓国漢医学은 다시 復興의 契期가 되어 새로운 制度와 教育機関의 設立 등으로 中興期를 맞이하게 되어 東西医学 比較研究 乃至는 同時併合治療 등 共存発展을 꾀하며 나아가 漢医学의 現代化 作業을 試図하는 現時点에 까지 到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事業이 아직 漢医学의 真髄의 変質与否에 対한 確答을 내리지 못하는 研究過程에 処하여 있는 重且大한 時点에 際하여, 西勢東漸하여 漢医学의 明滅期에 燦然히 그 伝統과 命脈을 維持시킨 当時 医学들의 出現을 研究함으로써, 오늘날 負荷된 問題에 附応하는 対答을 내리는데 一竈의 参考가 되리라 思慮되옵기 本 論題를 設定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研究의 一環으로 一期에는 李済馬医学에 関하여 報告하였으며, 이번에는 簡明한 編輯法으로 漢医学의 簡易化를 試図한 黃道淵의 医学思想과 그 当時의 韓国漢医学의 実情에 関하여 考察코저 하는 바이다.

---

1) 世宗祖命撰, 鄕薬集成方, 杏林書院(1977) p. 1 序章
2) 許 浚, 東医宝鑑, 南山堂 (1969) p. 1 原序
3)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永堂 (1966) p. 551
4) 洪淳用·李乙浩, 四象医学原論, 杏林出版社(1973) 附録
5) 金 勳, 李圭晙의 生涯와 学說에 関한 研究 (慶熙大学校大学院, 論文集 第6輯 (1978) p. 235

Ⅱ. 本　　論

1. 開化의 転機

哲宗의 뒤를 이어 高宗이 12才에 即位하자 大院君은 国王의 父親으로서 摂政하게 되어 対内的으로는 累積된 弊政을 刷新하고 対外的으로는 天主教를 圧迫하고 西学을 排斥하는 徹底한 鎖国主義 政策을 폈다.

数次에 걸친 韓国과의 通商交涉에서 失敗한 西洋의 여러나라들은 平和的인 交涉에 依한 通商関係의 成立은 바랄 수 없음을 認定한 나머지 武力的 威脅에 依한 通商関係를 꾀하였다. 그 結果 発生한 것이 洋擾였다.

첫 洋擾는 1866年(高宗 3年) 丙寅에 프랑스 艦隊가 江華島를 侵犯하여 일으킨 丙寅洋擾이며, 그 다음은 1871年(高 8年) 辛未에 美国軍艦이 江華島를 攻撃하여 일으킨 辛未洋擾이다.

두 차례의 洋擾를 격퇴시킨 大院君은 鎖国政策을 더욱 굳혔다.[6]

그러나, 極則変이란 易理가 있드시 이러한 極한 衰国政策에 反하여 通商開化論이 擡頭되어 그 勢力이 漸次 拡大되어감과 同時에 드디어 大院君은 1873年 (高宗 10年)에 下野하고 말았다. 이러한 国内事情에 敏感한 日本은 朝鮮侵略의 野慾을 품고 1875年 (高宗 12年)에 日本軍艦 雲揚号를 江華島에 侵犯케 하여 우리 砲鎭의 砲撃을 받게 되자, 이것을 口実로 그 翌年 1876年 丙子 正月에 우리에게 修好条約의 締結을 強要하여 釜山을 비롯하여 仁川 및 元山을 開港시켰으며, 日本人의 居留를 承認토록 하였다. 이것은 日本이 侵略을 目的한 一方的 意図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강화도 조약이지니는 역사적 意義는 컸다. 그것은 朝鮮이 国際的 舞台에 登場한 첫 出発로서 그로 因한 門戸가 世界로 向해 開放되었으며, 西洋의 新文明의 輸入과 함께 日本을 為始한 列強国 侵略의 歷史的 試練을 우리 民族에게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7]

그後로 朝鮮은 世界의 事情을 漸次 알게 되어 새로이 얻은 新知識을 土台로 開化의 물결은 일기 始作하였으며, 壬午軍乱 開化党의 誕生, 甲申政変, 東学乱等 数次의 混乱과 政変을 거듭하면서 列強과의 通商에 輸入되는 新文明은 開化라는 歷史的 흐름으로 내달려 드디어 甲午更張이란 大革新에 이르렀다. 이로서, 朝鮮은 名実共히 政治, 社会, 経済, 文化等 各分野에 制度上 大変革을 가져 왔으니 医学 亦是이 歷史的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물밀듯이 들어온 西洋医学은 우리 医学史에 큰 変化와 影響을 招来케 되었던 것이다.

2. 開化期 西医学의 流入이 미친 韓国漢医学의 影響

(1) 丙子修好条約 以後

㉠ 日本人의 医療活動

日本과의 医学的 交流는 오래前부터 있었지만, 丙子修好条約을 契期로 日本은 釜山을 비롯한 仁川 및 元山을 開港시키고 領事館을 設置하여 日本人의 居留를 承認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釜山에 済生医院 (1877年 高宗 14年), 元山에 生生医院 (1880年 高宗 17年), 仁川에 領事館附属病院 (1883年, 高宗 20年), 서울에 日本館医院 (1883年 高宗 20年) 等 西医法에 依한 病院을 開設하여 西洋医学을 公共然히 実用케 하였다.[8] 그리하여 日本人은 勿論 많은 우리나라 患者들에게도 治療를 実施하였다. 1879年 (高宗 16年) 6月에는 콜레라가 日本으로 부터 釜山에 伝播되자, 日本관헌측의 要請에 依하여 처음으로 西医法에 依한 予防法이 実施되었으며, 그後 1895年 (高宗 32年) 6月에 本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法令으로 公布実施[9] 되었는가 하면, 1879年 (高宗 16年) 10月에 池錫泳은 釜山의 日本済生院에서 日本人 医師에게 二個月間의 種痘法의 実習을 받고, 同年 12月 처음으로 種痘를 実施하였는데 이것이 池錫泳의 첫 種痘 実施였다.[10]

㉡ 美国예수교 宣教会의 医療活動

高宗은 1882年 (高宗 19年) 壬午부터 美国을 비롯하여 英国, 独逸,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6) 李基白, 韓国史新論, 一潮閣 (1978) p. 312~317
7) 李弘植, 国史大辞典, 大栄出版社 (1977) p. 40
李基白, 韓国史新論, 一潮閣 (1978) p. 321
8)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96) p. 455
9)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96) p. 551
10)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96) p. 476

等 欧美 各国과 通商을 맺기 始作하였다.[11] 그리하여 欧美 各国들은 우리나라에 公使舘을 設置하였으며, 그리스트教 宣教師 및 宣教医師들을 파견하여 医療事業을 通한 宣教活動을 実施하였는데, 그 重要한 것은 Allen과 Avison의 医療活動이다. 即, 1884年(高宗 21年) 美国公使舘所属医師 美国人 알렌(実은 美国 宣教医師)이 甲申政変으로 負傷입은 禁衛大将 閔泳翊과 清·日両兵들의 충돌로 因한 清国의 負傷兵들을 治療함으로서 西洋医術에 対한 우리나라 国民의 信望을 얻게 되자, 우리 宮廷의 嘱託医를 兼任케 되었다.[12] 그리하여 1885年 2月에 韓国政府에 建議하여 王立 病院인 広恵院을 設置케 하여 長으로 就任함과 同時에 学徒들을 並置하여 西洋医学을 学習케 하였다.[13]

1893年 알렌의 後任으로 에비손이 済衆院(広恵院의 改称)을 맡으면서 済衆院은 政府의 財政難으로 더以上 王室의 保護를 받을 수 없게 되자 宣教会事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後, 1899年(光武三年)에는 済衆院 医学校를 設立하고 10年後인 1908年 6月(隆熙2年)에 第一回 卒業生 7名을 내었는데, 이것이 現 延世大学校 医科大学의 前身인 세브란스医学校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西医学은 王立病院인 広恵院에서 始作하여 済衆院의 時代를 거쳐 세브란스病院으로 変遷発展한 것이다.[14]

그外에도 그리스트교파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主要都市 各処에서 医療事業을 展開하였다.

以上에서 丙子修好条約 以後의 日本人 및 美国宣教医師들을 中心으로 우리나라에서 展開된 그들의 主要한 医療活動의 概要를 보았거니와 이러한 西医学 流入이 미친 伝統医学에의 영향 및 그 意義는 컸다. 왜냐하면, 그 当時 混乱과 飢餓等 社会的 悪循環下에 兼하여 侵入하는 伝染性 疫病인 콜레라, 天然痘 등의 伝播는 百性들을 恐布로 몰아 넣었다.

이러한 때에 特히 콜레라의 予防 및 種痘 등의 西医学的 予防施術은 우리나라国民保健에 貢献한 바, 컸으며, 나아가 守旧封鎖되었든 우리의 医学이 新医学이란 새로운 知識을 輸入하여 世界를 向해 呼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西医学은 時代的 흐름을 타고 急速度로 普及되어 지금까지 漢方的인 単一治療에서 洋方的인 治療에로 分岐되는 二元的 治療現状을 招来케 하였는가 하면, 漢方医学과의 차이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西医学的 知識의 追求로 伝統医学은 漸次 疎外되어 드디어는 찬란하든 民族医学文化의 등불이 꺼지기 始作하였기 때문이다.

(2) 甲午改革 以後

1894年(高宗 31年) 甲午에 開化党의 新政府가 成立되면서 政治, 社会, 経済, 文化 등 모든 在来의 制度를 改革한 이 革新政策은 우리나라의 모든 保守的 体制를 近代化하려는 進歩的 発端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우리의 自力에 依한 것이 아니고 韓国에 対한 支配権 確立의 野欲을 품은 日本의 操従이 그 背後에 있었으며, 또한 오랫동안 우리의 生活속에 젖은 우리의 실질적 社会生活에 対한 改革이었기 때문에 当場에 큰 効果는 걷우지 못하였든 것이다.[15] 따라서, 医学界에 있어서도 医事 및 医育制度 등 西医学的 知識에 依한 改革으로 推進하면서도 漢医学에 依한 従来의 伝習을 일시에 철폐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다음, 그 改革 政策의 内容을 간추려보면,

㉠ 医事行政 制度

新政府는 第一次 官制改革에서 医薬은 内務衙門에 衛生局을 두어 거기서 관장케 하면서 主로 伝染病 予防事務兼 医薬, 牛痘 등의 事務를 管理케 하였다.[16] 그後, 衛生局이 衛生課와 医務課의 二課로 나누어지는 등, 여러 차례 法令이 改定되면서 衛生事務가 強化되었으며, 隆熙 3年(1909年)에는 衛生試験所를 設置하여 各種 検査를 実施하였다.[17] 그리고, 各種 流行性 伝染病 予防 및 消

11) 李基白, 韓国新論, 一潮閣 (1978) p. 327
12)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400
南都泳, 韓国史, 法政会 (1977) p. 289
13)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46
14)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485
15) 李泓稙, 国史大辞典, 大栄出版社 (1977) p. 24
李基白, 韓国史新論, 一潮閣 (1978) p. 345
南都泳, 韓国史, 法政会 (1977) p. 305~307
16)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51
17)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635

毒法의 法規가 반포되었다.[18] 또, 病院官制의 勅令 등을 반포하여 病院을 設立하였으니 済衆院(王立病院 1885年)을 비롯하여 内部病院(1899年), 広済院(1900年 内部病院의 改称), 大韓 赤十字社病院(1905年), 大韓医院(1907年), 慈恵医院(1909年) 등이 차례로 設立되었다.[19] 그리고, 宮廷内의 医療는 内医院(典医司, 太医院, 侍従院으로 改称됨)에서 隆熙 元年까지 漢医法에 依하여 典医들이 主管하였으며, 다만 高宗22年에 알렌이 宮内部 嘱託医로 出入하면서 西医法이 어느 정도 併行 実施되기 始作하였다.

㉡ 医育制度

1899年(光武3年) 3月 医学校 官制를 반포하여 官立医学校를 設立하였는데, 授業年限은 3年이며 学部衙門에서 直轄하였다.[21] 1903年 7月에 第1回 卒業生 19名을 輩出하였으니 그것이 現서울大学校 医科大学의 前身이었다.[22] 또, 1886年 (高宗23年)에 王立病院인 済衆院에서 始作한 医育教育이 1899年에 済衆院 医学校가 設立되면서 正式으로 実施되었던 것이니 그것이 前述한 바 現 延世大学校 医科大学의 前身이었다.[23]

㉢ 東西医学 併行制度

上述한 바와같이 甲午改革 以前부터 宮廷에서는 西医들이 嘱託医로 出入하면서 漢·洋方을 兼用하였으며, 甲午改革 以後에도 如前히 典医中心으로 運営하여 洋方을 併用하였다. 医事行政 部門에서도 衛生局長, 内部直属病院長 등 医務要職에는 如前히 典医들이 任命되었다.[24] 그리고, 光武 3年 4日에 設立된 内部病院職制에는 漢医로서 大方医(内科医) 2名, 針医 1名을 配置하였으며, 光武 9年 2月에 반포된 官制에 依하면 広済院医師 12名中 漢薬所 4名, 洋薬所 3名, 種痘所 5名으로 配定되어 있다.[25] 이것을 볼때 一般国民의 施療에도 漢·洋方을 併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光武 11年 3日 広済院이 閉鎖되고 다시 大韓医院 官制가 반포되면서 漢薬所는 廃止되고 오직 洋方専用病院으로 改編되었다.[26]

그런데, 特記할 것은 隆熙 2年 10月에 流行한 콜레라患者 避病院인 順化医院에서는 病者의 治療에는 主로 漢薬을 服用케 하고 消毒 및 予防에는 洋薬을 利用하였다.[27]

㉣ 漢方医学校의 設立

1904年 (光武 8年) 4月 18日 前侍従 兼 典医 張容駿, 洪哲普 등은 漢医学을 専攻하는 医学校를 特設하기를 請願하였다.[28] 그리하여, 드디어 東済医学校의 創設許可를 얻었다.

그러나, 本校가 約 一年間을 維持하여 오던 中 政府에서 経費支出이 되지 않아 中断状態에 到達하였을 때, 高宗께 奏請하여 高宗私用財인 明礼宮의 親用金으로 3年間 더 継続되었으나, 결국 隆熙 3年 10月에 다시 経営乱에 빠지게 되자, 洪哲普(会長) 등의 発起로 大韓医士会[29]를 組織하여 거기서 運営을 하였으나, 如意치 않아 大韓講習所 또는 講習院으로 改称되어 漢医教育을 実施하였다.

그後, 다시 隆熙 4年 8月에는 大韓医士会가 任員会를 열어 漢城内의 医士[30]를 召集하여 東西医学 講習所를 만들어 講義케 하기도 하였다. 그 当時의 医学団体로는 漢医들의 大韓医士会, 西医들의 医学研究会, 日人医師들의 鶏林 医学会가 있어 제各己 活動을 展開하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이 甲午改革以後 모든 行政 및 医育制度를 西医学的 方式에 依하여 改編하였으나, 오랫동안 伝習된 漢医薬을 一時에 버릴 수는 없어 洋方病院에 漢方科를 併設하였는가 하면 한 때는 漢方医学校를 設立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国家制度의 改革過程에서 겪는 過渡期的 現状에 不過하였던 것이며, 1907年 (高宗44年,

18)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53, 570, 575
19)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46, 567, 578, 609, 621, 641, 643
20)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511
21)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66
22)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89
23)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517
24)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518
25)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探求堂 (1966) p. 567, 604
26)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621
27) 金斗鍾, 韓国医学史, 探求堂 (1966) p. 518
28) 金斗鍾, 韓国医学文化社大年表, 探求堂 (1966) p. 596
29)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史大年表, 探求堂 (1966) p. 643
30)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史大年表, 探求堂 (1966) ※ 当時에는 漢医師도 医士라 称.

光武11年) 3月10日 勅令 第9号로 大韓医院官制[31]가 公布되면서 開国以来 지금까지 이 民族의 保健을 지켜 오던 漢医学은 드디어 法令에 依하여 国立医療機関에서 永永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말았다.

鄕薬集成方, 東医宝鑑 等 祖上이 이룩한 많은 民族医学文化를 政府는 「改革」이란 政策을 通해 그 暢達의 길을 닦고 오직 하나의 医学史的 産物로 끝내고 말았다. 이러한 時点에서 唯一한 東済医学校도 財政難으로 門을 닫고 講習所로 転落하는 悲運의 逆境에 処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結局 甲午改革은 韓国医学을 西医学的 制度로 近代化하는 契期는 되었지만, 오랫동안 伝来하는 伝統的 民族医学의 発展에 沈滞性을 賦与케 한 逆作用을 함께 하였다.

結局, 漢医学은 国家의 積極的인 育成策에서 疎外되어 発展의 機会를 喪失하고 오직 伝統의 命脈을 維持하는 衰運에 処하게 되었던 것이다.

3. 黃道淵과 그의 医学

黃道淵의 号는 恵庵이요, 本貫은 慶南 昌原이다. 昌原 黃氏 侍中公派 18世孫으로 1807年(純祖 7年)에 慶南 昌原에서 出生하였다.[32]

哲宗때부터 高宗 初期까지 서울 武橋洞에서 医業을 経営하여 名声을 떨쳤다.[33]

그는 恒常 東医宝鑑의 浩繁함과 未備함을 集約補完하여 簡明한 体系의 医書를 編輯코저 하였다.

그 結果, 西紀 1855年(哲宗 6年)에 附方便覧28巻, 1868年(高宗 5年)에는 医宗損益12巻과 医宗損益附餘(本草) 1巻을 編述하였으며, 그 翌年에는 다시, 医方活套 一巻을 刊行하였다. 그 以後 上記한 附餘의 薬性歌를 七言二句 十四字로 縮少하여 損益本草라 이름하고 医方活套와 損益本草를 併合하여 方薬合編이라 命名하고 이것을 編輯하다가 1884年(高宗21年 甲申) 8月 17日에 그 일을 끝내지도 못한 채 中途에서 卒하니 享年 77才 였다.

그当時, 나라의 情勢는 어지럽고 西洋의 新文明이 들어와 모든 領域에 変革의 바람이 불기 始作하였으니 医学界 亦是나 上述한 바와 같이 西医学의 流入으로 漢医学은 沈滞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恵庵은 이러한 때에 出現하여 漢医学을 簡明하게 集約시켜 簡易医学, 実用医学으로 発展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漢医学의 簡易大衆化에 対한 그의 功績은 実로 크다 하겠다.[34]

(1) 著　　述

① 附方便覧

附方便覧 14冊 28巻은 1855年에 著述한 것으로서 現在 昌慶苑 蔵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한다.[35] 그의 序에서 「余는 本書에서 考據를 빨리 할 것을 生覚한 까닭으로 東医宝鑑에 依하여 精気神 으로부터 百体에 이르기까지 証에 따라 方을 蒐集하고 또 清의 蔡繭斎의 本草針線을 얻어 宝鑑의 未備를 갖추어 싣게 하였다.」[36] 라고 적혀 있어 本書는 恵庵이 東医宝鑑을 基本으로 各 病証에 따라 有効한 治療方만을 抜萃하고, 그 治療方에 対한 本草的 知識을 活用性있게 첨부하여 病証과 本草를 同時에 容易하게 参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本書의 分類体系는 다음과 같다.[37]

一巻	身形, 精, 気, 神
二巻	血, 夢, 声音, 津液
三巻	痰飮, 虫, 小便
四巻	大便
五巻	頭面
六巻	眠
七巻	耳, 鼻, 口, 舌
八巻	牙歯, 咽喉, 項背
九巻	胸, 乳, 腹, 腰, 脇
十巻	皮, 筋, 手, 足
十一巻	毛髪, 前陰
十二巻	後陰
十三巻	風

31) 金斗鍾, 韓国医学文化史大年表, 探求堂 (1966) p. 621
32) 韓国人의 族譜編纂委員会, 韓国人의 族譜, 日新聞 (1979) p. 3　1317
33) 金斗鍾, 韓医学史, 探求堂 (1966) p. 456
34) 金泓植, 韓国史大辞典, 大栄出版社 (1977) p. 1781
35) 黃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黃道淵과 그의 医学
36) 金斗鍾, 韓医学史, 探求堂 (1966) p. 456
37) 黃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黃道淵과 그의 医学

十四卷　寒，暑，湿，燥，火
十五卷　内傷，虚労
十六卷　霍乱，嘔吐
十七卷　咳嗽，積聚
十八卷　浮腫，脹満，消渇，黄疸
十九卷　瘁癘，温疫，邪祟
二十卷　癰疽，諸瘡，上
二十一卷　諸瘡，下
二十二卷　諸傷
二十三卷　解毒
二十四卷　救急，怪疾，雑方，製造
二十五卷　婦人
二十六卷　胞
二十七卷　小児，上
二十八卷　小児，下

㉡ 医宗損益

本書는 6冊 12卷과 附餘 1冊 1卷으로 1868年(高宗 5年)에 刊行되었는데, 그는 凡例의 첫머리에서 「医書는 巻帙이 雑多하면 왕왕 萬斛의 파도와 같아서 学者가 依泊할 곳이 없어 宗旨를 상실하게 되므로, 群書를 蒐輯하여 그 번거로움을 버리고 簡明함을 就한다」[38] 라고 하여 医学의 簡明性과 実用性을 指向하였다. 그리하여 東医宝鑑의 번거로운 부분을 縮小시키고, 其他 群書의 採録 및 著者의 立論과 経験을 添加하여 編纂한 것이다.

그 編輯内容은 다음과 같다.[39]

巻一 (子集) 総論, 身形, 精, 気, 神
巻二 (丑集) 血, 夢, 声音, 言語, 津液, 痰飲, 五臓, 六腑, 胞, 蟲,
巻三 (寅集) 小便, 大便, 頭, 面, 眠
巻四 (卯集) 耳, 鼻, 口舌, 牙歯, 咽喉, 頚項, 背, 胸, 乳, 腹, 脇, 腰, 脇,
巻五 (辰集) 皮, 肉, 脉, 筋, 手, 足, 毛髪, 前陰, 後陰
巻六 (巳集) 風, 寒
巻七 (午集) 暑, 湿, 燥, 火, 内傷
巻八 (未集) 虚労, 霍乱, 嘔吐, 咳嗽, 積
巻九 (申集) 浮腫, 脹満, 消渇, 黄疸, 痰癘, 瘟疫, 邪祟, 癰疽
巻十 (酉集) 諸瘡, 諸傷, 解毒, 救急, 雑方
巻十一 (戌集) 婦人
巻十二 (亥集) 小児

附餘 一巻의 薬性歌는 明代의 龔雲林이 自己경험에 依하여 編述한 壽世保元에 있는 360種, 우리나라 康命吉의 済衆新編에서 80種, 自己가 新増한 73種, 그리하여 모두 540種을 毎薬마다 四言四句 十六字로 表示하였는데 그 分類方式은 本草綱目의 形式을 따랐다. 또, 特記할 것은 薬性의 끝에 薬名을 国名으로 附記하여 郷薬研究에 많은 参考를 준 点이라 하겠다.[40]

㉢ 医方活套

本書는 一冊으로 1868年 (高宗 6年 己巳) 2月에 편성된 것이다.

医宗損益이 東医宝鑑의 活繁함을 버리고 簡明化하였다고 하나, 未及함을 느끼고 보다 더 骨子만을 발췌하여 暗記에 편하도록 보기쉽게 편집한 것이다. 그 序에서 「薬은 随証加減함이 마땅하고 証에 臨하여서는 先後를 가려서 治療할 것이니 或은 十病에 同一処方을 쓰기도 하고, 或은 一方에 群剤를 合하기도 하니 초보자로는 例方을 뽑아 쓰기가 不可하므로 次序를 三統으로 分門하여 補益, 和解, 攻伐의 三品으로 分類하여 쓰게 한다」[41] 라고 하였으며, 또 用薬指針을 添附하여 使用者로 하여금 冊을 열면 治療를 兼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는 可히 対証 投剤에 便宜를 두었다 하겠다.

그 編輯方法을 보면 巻頭에 病名을 列挙하고 그 밑에 그에 応하는 処方을 記載하고 各処方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索引에 便利하도록 하였으며 또 各 処方의 内容에는 随症加減法을 附記하여 臨床家의 応急的 活用에 便宜를 提供하였다.

㉣ 方薬合編과 그의 子 必秀

必秀는 黄道淵의 子로 号는 塡村이다. 医学뿐지 아니고 儒学에도 깊은 学識을 가졌으며 著書로는 新式儒胥必知, 達道集経大会 등이 있으며 官職은 은 郡守에 이르렀다[42].

38) 黄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黄道淵과 그의 医学　凡例
39) 黄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黄道淵과 그의 医学　医宗損益 目録
40) 黄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黄道淵과 그의 医学　影印에 즈음하여
41) 黄道淵, 医方活套　贊化堂 (1868)　序文
42) 韓国人의 族譜編纂委員会, 韓国人의 族譜, 日新閣 (1979) p.3　1317
李弘稙, 国史大辞典, 大栄出版社 (1977) p.1791

黃道淵의 나이 77才로 이미 年老하고 気力이 衰함에 스스로 抄録을 할 수 없어 그의 子 必秀에게 書例를 伝하여 汪忍庵의 本草備要와 医方集解를 合編한 法을 模倣하여 医方活套에 損益本草를 合하고 다시 用薬綱領과 救急, 禁忌等 十数種을 補充하여 方薬合編이라 命名하고 編輯케 하던 中 그 著役이 切半도 채 못되어 恵庵이 卒함에 必秀는 父의 遺志를 継承하여 父의 死亡後 約 4個月後인 高宗 21年 (1884年) 12月 上旬에 編輯을 끝내고 出刊하니 이것이 바로 方薬合編의 原著이다.[43]

本書의 編輯은 医方活套의 三統法에 薬性歌를 每頁의 上面에 記載하고 用薬綱領 및 救急 禁忌等을 後面에 添附하였으니 그 一冊으로 医方과 薬物및 其他 필수사항에 관한 集約된 知識을 一目瞭然하게 理解할 수 있도록 하였다.

本書의 編制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試図된 것이며 本書중에 採録된 医方들은 대개 모두 常用可能性이 있는 一般的인 것으로서 時用에 適合하며 理解하기 편리하며 医家는 勿論 非専門家들에게까지 많은 愛用을 받았다. 그리하여 本書는 漢医方의 便覧書로서 一般 臨床医들의 常備하는 方書로 되어 漢医学의 簡易化에 많은 功績을 남겼다.

(2) 黃道淵의 医学思想

黃道淵은 그은 著書 附方便覧의 序에서 書籍의 考據를 빨리 할 것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医宗損益의 凡例에서는 浩繁함을 버리고 簡明함을 就한다고 하였다. 또 医宗損益의 序의 몇句를 要約해 보면 「医者는 宜也니 宜於 時而止라 옛날에 医薬한 사람이 当世에는 妥当하였으나 久遠한 時間이 지나는 동안 弊端이 없을 수 없으며 폐단이 있으면 沿革에 依하여 変通 또한 없을 수 없으니 그 至当함을 求하여야겠기에 여기 医宗損益을 著作한다」[44] 라고 하였다.

以上의 内容들을 볼 때 恵庵의 医学的 立論을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論理의 集約, ② 書籍의 簡易, ③ 医薬의 時宜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理論이 広範하면 산만해져서 宗旨를 喪失하기 쉬우므로 理論을 集約하여 그 核心을 把握하자는 것이며,

둘째로, 書籍은 浩繁하면 論理를 集約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真髄를 발췌하여 編著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東洋医学은 原典을 重要視한다. 그러나 거기에 収録된 内容이 오늘의 現実과 完全히 符合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原典을 理解함에는 반드시 著書의 時代的 背景과 連関하여 그 原理를 把握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되지 못할것이다. 無條件 記述된 内容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盲目的 暗記나 다름없을 것이다.

疾病自体도 古代와 많이 変化 相異해졌다. 千先天然痘, 癘疾등이 없어졌으며, 其外 子防医学의 発達로 많은 伝染病이 消滅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은 與件의 変化에 따라 医学의 内容도 淘汰되고 不断히 変하며 発展되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恵庵의 「宜於時 適於用」 即医学은 時宜에 適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恵庵은 時用에 適合한 医学의 多角的인 活用을 指向하였기에 医書의 簡明化에 力点을 두었다. 그러므로 恵庵은 特殊 少数人들이 深奥하고 高尚한 知識을 追跡하기 보다는 多数大衆들이 簡易하게 実質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医学을 形成코져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恵庵의 医学思想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는 書籍의 編輯도 方薬合編과 같이 간편하게 編成하여 医学의 簡易大衆化를 為해 便宜를 供하였다. 그러나 学理가 不足한 突発医들의 輩出의 可能性을 지닌 逆作用을 함께 하면서도 恵庵이 漢医学의 簡易大衆化에 미친 功은 実로 크다 하겠다.

Ⅲ. 総括考察

大院君의 鎖国政策이 各界의 反撥을 사게 되어 大院君은 드디어 그의 反対勢力에 依하여 1873年(高宗 10年)에 下野하자 日本은 그 侵略的 脚本에 따라 雲揚号事件을 일으키고 1876年에 江華島 修好條約을 締結케 하였다. 그리하여 釜山을 為始하여 仁川, 元山을 開港시키고 日本人의 居留를 許可토록함과 同時에 서울을 비롯한 開港地에 日本人経営

43) 黃道淵, 方薬合編 (1869) 序文

44) 黃道淵, 医宗損益 医薬社 (1976) 自叙

의 病院을 開設하고 西洋医学을 公共然히 実施하였다.

한 便 1882年(高宗 19年)부터 欧美各国과도 通商이 始作하게 되자 主로 美国人 宣教医師들이 서울을 비롯하여 점차 전국주요 都市에 症院을 設立하고 西医式 医療活動을 展開하였다.

이렇게 밀려들기 始作하는 西医学에 漢医学은沈滯性을 보이면서도 継承되어 왔으나, 甲午改革 以后 모든 보건행정 및 医育制度가 西医学的 方法으로 制度化됨에 따라 漢医学은 드디어 歷史的인 新旧 交替의 転換点에 서고 말았다. 한때 漢·洋方併行制란 결국 改革 実施后에 오는 過渡期的 現狀이었으며 드디어 1907年(光武 11年) 3月 大韓医院官制 반포로 漢薬所는 드디어 国立医療機関 에서 永永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以上과 같이 丙子修好條約后 밀려들기 始作한 西医学의 普及으로 韓国漢医学은 漸次 침체와 凋落期를 맞이하던 此際에 한의학의 새로운 系統을 定立하며 惠庵 黃道潤이 찬연하게 出現하였다. 그는 尨大하고 浩繁한 漢医学을 보다 簡易하고 実質的인 医学으로 形成코저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著書中 特히 独特한 編法으로 간결하고 便易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한 医方活套는 그의 思想을 雄弁해 주었거니와 나아가 最后의 遺作인 方薬合編은 1884年(高宗 21年) 그의 子泌秀에 依해 出刊되면서 그의 簡易 大衆化의 医学思想을 그대로 実践해 주었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이 輸入된 実証的인 西医学에 対応하여 浩繁하고 추상적인 한의학을 보다 簡易하고 実質的으로 活用할 수 있게 함으로서 時代的 潮流에 並進하면서 韓国漢医学의 大衆化 普及에 큰 一役을 担当하였다.

그것은 그后 오늘날까지 約 10余種의 方薬合編이 出刊되었다45)는 事実하나만으로도 能히 그 活用度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何如間 黃道潤의 医学은 衰退期 漢医学의 普及 및 簡易大衆化에 많은 功績을 남겼든 것이다.

Ⅳ. 結　　論

1) 19世紀 中葉에 擡頭되었든 開化思想의 勢力은 拡大되어 드디어 大院君은 下野하고 말았으며, 이를 틈탄 日本은 丙子修好條約을 締結함으로서 韓国은 日本을 為始하여 점차 欧美 各国과 通商을 開始하게 되었다.

2) 丙子修好條約后 日本人의 西医学的 医療活動을 為始하여 美国 宣教医師들의 의료활동 등은 結局 韓国医学界에 実質的으로 対等한 二元的 医療制의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었다.

3. 丙子修好條約에서 우리는 新医学을 輸入 하고 나아가 甲午改革으로 因한 医事 및 医育制度가 西医式化한데 対한 医学史的 意義는 크다.

   그것은 甲午改革이 韓国医学의 近代化의 契期는 되었지만 伝統医学을 沈滯시켜 民族医学의 試錬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다.

4. 漢医学의 明滅期에 出現한 黃道潤은 漢医学의 簡易化, 大衆化 時代化를 指向하고 在来의 浩繁한 医書들을 骨子만 集約하여 簡明하게 編述하였으니 特히 그의 著書 方薬合編은수많은 사람에게 愛用되었든바, 그가 끼친 韓国 漢医学의 簡易 大衆化의 功은 実로 크다.

5. 開化政策에 依하여 점차 기울어지든 韓国 漢医学의 침체성을 概観하고 医学은 그 나라의 政治와 그 国民의 文化와 그 民族의 思想을 떠나서 特殊한 発達을 이룩할 수 없음을 알았다.

45) 康泰煥, 增註国訳方薬合編, 杏林書院 (1975) 凡例

〈参 考 文 献〉

1. 金 斗 鍾　韓 国 医 学 史　서울：探求堂，1966
2. 金 斗 鍾　韓国医学文化大年表　서울：探求堂，1966
3. 南 都 泳　韓 国 史　서울：法政学会，1977.
4. 世祖朝命撰　郷 薬 集 成 方　서울：杏林出版社，1977
5. 李 基 白　韓 国 史 新 論　서울：一潮閣，1978
6. 李 泓 稙　国 史 大 辞 典　서울：大栄出版社，1977
7. 廉 泰 煥　増註国訳方薬合編　서울：杏林書院，1975.
8. 韓国人族譜編纂委員会　韓国人의 族 譜　서울：日新閣，1979.
9. 黄 道 淵　医 空 損 益　서울：医薬社，1976
10. 黄 道 淵　医 方 活 套　서울：贊化堂，1869.
11. 黄 道 淵　方 薬 合 編　未 詳，1885.
12. 許 浚　東 医 宝 鑑　南山堂，1969.
13. 論文集(第6輯)　慶熙 大 学 校　大学院会，1978.